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AI와 국자

요리계에 들어갔던 오래 전, 주방에 속칭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았다. 아침엔 흙 막내가 바친 커피와 토스트를 드시며 조간신문을 보던 주방장의 위엄도 기억난다. 예전 주방장의 능력 평가는 역시 매출을 올리는 것이었지만 다른 가게가 못 따라오는 독보적 조리법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도 따졌다. 예를 들어, 돈가스소스는 시중에서 전혀 구할 수 없을 때라 그 배합법도 주방장의 자산이었다.

사실이라고 몰랐지만 중국집에 흔한 칠리새우나 마파두부 조리법을 아는 주방장이 장안에 손 꼽던 때도 있었다. 마요네즈 만드는 법도 1970년대 전에는 최고급 호텔 요리사나 알던 기술이었다. 그때 주방장들은 대체로 후배들에게 쉽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기술이 곧 자기 밥줄이었고, 일정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자격이 생기면 자연스레 기술전수를 받아 주방장이 된다는 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국자로 맞아가며 배웠다'는 요리계의 오랜 속언이다. 그 상황이란 이렇다. 선배가 요리사들을 몰리고 혼자 비장의 소스를 만들고 있다, 이때 후배가 선배 뒤로 가서 훑겨 넘겨본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선배가 국

자를 휘둘러 쫓아낸다. 뭐 이런 상황이다.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말은 기술분야에 흔한 전설인데,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된다. 쉬이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선배의 우려, 그걸 어떻게든 배우려는 후배의 욕망이 그 시대의 언어로 지금까지 통용된다. 나 역시 온갖 기술을 주방장, 선배, 동료들에게 배웠다. 스파게티 국수 한 줌 삶는 법을 배우러 외국까지 갔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덕에 유명해진 이탈리아 생면도 내 세대가 2002 월드컵 무렵 거의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들어 팔았던, 말하자면 '신상'이었다. 칼국수랑 별 다를 바 없는 기술인데, 이탈리아 생면을 아는 한국 요리사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였다. 요리책도 아주 빈약하고, 가정요리 중심이어서 프로 요리사가 볼 만한 게 드물었다. 간혹 외국 책을 무단 번역하여 편집한 책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외국출장을 가서 책을 한 보따리 사주고, 인터넷시대 이후에는 아마존에서 주문해 보는 게 전부였다. 스마트폰만 열면 레시피가 쏟아지고, 국내외 최고의 셰프가 만드는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는 후배 몰래 만드는 사람도 없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유튜브가 되어 만천하(?)에 알리는 게 유명해지고 돈도 버는 길이 되었다. 국자로 쫓아내기는커녕 어서 와서 많이들 보라고, 자기의 독자적 기술을 마구 알려준다. 정보의 양이 많고 정확할수록 구독자가 늘고 수입도 커질 확률이 높다. 없는 기술을 만들어서라도 알려주기도 한다. 물론 유튜브란 게 실제 만들어보면 별 것 아닌 과대포장이 다반사라는 것도 아젠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른바 낚시용 콘텐츠를 말한다. 한술 더 떠 최신 유행인 AI로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광범위하게 빨리 찾을 수 있다. 외국회사가 만든 시스템인데, 심지어 제주 토속요리 이름을 넣어도 조리법을 찾아내 준다. 아직은 제한된 조건을 탐색하는지라 틀린 내용을 버섯이 진짜짜리 알려주는 일도 벌어지지 만. 유튜브나 AI가 아무리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할머니 손맛을 가르치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적인 구성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임성훈 조선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지난 2000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 중 하나로 '치과교정과 의사'를 꼽았다. 디지털 투명교정장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정치료가 간소화되고, 일반 치과의사가 교정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오늘날, 그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명교정장치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기간 동안 투명교정장치의 치료 효과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투명교정장치는 심미성과 탈착의 편리성 때문에 인기가 높다. 경미한 부정교합 치료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등도 이상의 복잡한 사례에서는 전통적인 고정식 장치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며 설계된 치아 이동량의 절반 정도만 달성된다는 보고도 있다. 더불어 투명교정장치의 효과는 환자의 협조도에 크게 좌우된다. 하루 22시간 이상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잦으며, 제

투명교정장치, 혁신인가 퇴보인가

획대로 치아가 움직이지 않아 장치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환자는 투명교정장치를 브랜든나 비움만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치료 성공 여부는 장치 자체뿐 아니라, 이를 적절히 설계·관리할 수 있는 술자의 생역학적 이해와 임상적 판단에 달려 있다. 미국의 투명교정장치 제조사 'SmileDirectClub'이 2023년에 파산한 사례는 전문의의 관리 없이 투명교정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회사는 디지털 방식의 투명교정장치를 소비자에게 약 절반 가격에 직접 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2019년 나스닥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조 2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약 200만 명의 사용자 중 상당수가 부실한 치료 결과를 겪으며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회사는 파산에 이르렀다. 교정치료의 목표와 과정은 환자와 술자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치료 기간을 길게 잡아 최상의 결과를 추구할지, 아니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어느 정도 절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목표 수준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투명교정장치로는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의 회전, 혹은 치아 뿌리의 이동량이 많은 유형의 치아 이동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타협해버리면 최종 치료 결과가 표준 이하가 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한 강남 치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명교정치료 전후 사진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 치료 결과가 표준 이하임을 인지하

지도 못하는 것 같다. 투명교정장치 위주로 치료하다가 갑자기 폐업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강남의 투명치과의 경우 투명교정치료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호소가 많았다. 놀라운 점은 광주 전남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이 투명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었다는 점이다. 과도한 마케팅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투명교정장치는 분명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교정치료의 성패는 여전히 술자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증례에서 치료는 초기 디지털 계획과 달리 진행되기 마련이며 치아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장치를 재설계하거나 보조 장치를 추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치료 도중 브라켓 교정장치나 미니-튜브 장치를 사용하고 다시 투명교정장치를 적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각 장치가 잘할 수 있는 치아 이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 타임의 예측은 투명교정장치의 기술적 한계와 치과교정과 의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전망이었다. 혁신적인 장치라 해도 잘못 사용된다면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해도, 교정치료의 성공은 치아 이동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술자의 임상적 판단에 좌우될 것이다. 치과교정과 의사는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최적의 치료를 설계하고 관리한다.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치과교정과 의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고



문창현 광주동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입춘이 지났는데, 칼바람이 아직도 매섭다. 언제쯤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려는지...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서있잖니, 요즘 암울한 우리 지역 관광산업이 오버랩된다. '제주항공 참사, 광주관광업계 300억 사라졌다', '계명령에 여객기 참사까지...광주-전남 여행업체 피해 속출' 등과 같이, 언론상에는 온통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바로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애도 속에 조용히 연말연시를 보내는 와중에, 한편에서는 겨울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계가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 때문이다. 계명령 발표 이후 연말 단체여행이 모두 취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여객기 참사 쇼크로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도 역시 모두 취소되었다. 광주 여행업계의 피해 현황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100%에 육박한다고 한다. 전남 역시 여행사 취소 건은 900건에 취소율은 95%에 이른다. 또한 피해에만 여행업체 추산 300억 원에 달하면서 지역 여행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이르며, 종사자 1000여 명의 생계가 막연한 실정이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에 들어서 다른 지역과는

광주 관광산업의 봄날을 기다리며!

달리, 피해 업체의 대부분이 광주·전남 등 지역 관광산업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안국제공항이 10월까지 공항 폐쇄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단기간에 사대 해결을 기대했던 여행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번 위축된 여행심리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지역관광에 대한 방문기피 현상은 일파만파로 여행업은 물론이고 음식·숙박업 등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깊은 터널을 뚫고 지나와 이제 막 한시름 놓는 게 싫더니, 다시 항공 참사라는 커다란 악재를 만난 셈이다. 닛 놓고 작금의 상황을 지역관광의 위기로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위기탈출의 새로운 기회로 삼을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참에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역 관광산업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급한 불은 꺼야 하기에 단기적 측면에서는 지역 관광 사업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우선 전남 무안군에 한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광주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등 반복되는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여행업 재난 공제보험제도'를 신설하고 긴급고용 지원금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상환기간 연장, 업종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광인센티브 상향 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획

기적인 유인책으로써 방문의 해나 광주관광 그랜드세일과 같은 대규모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 지역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다보스포럼 회장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번 기회에 미래 관광트렌드 및 새로운 시장상황에 대응하도록 온라인 관광소비에서 온라인 OTA(Online Travel Agency) 중심의 시장구조로 재편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관광비즈니스모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주문화관광재단도 지역 관광산업의 회복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특히 재단은 광주 원도심 지역 명물을 활용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 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관광숙박업 얼라이언스(Alliance) 지원, 스마트관광플랫폼인 '광주 아드페스' 활성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촉이 관광산업의 확장성과 연계성을 확대시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다. 고사성어에 '마부위침(磨斧爲針)'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와 인내로 버티면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 분명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도 그러할 것이다. 이제 흑독한 겨울은 지나고 광주 관광산업의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다.

社說

지자체 선심성 지원금 경쟁은 자제해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때보다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지원금 성격이라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만 9개 시군이 설 명절을 전후로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한 영광군은 이번 설에 5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추석 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이 5만여명인 탓에 소요 예산만 524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한빛원전에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 300억원이 주요 재원이다. 보성·고흥·해남·완도·진도 등 나머지 시군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안팎

에 그쳐 민생지원금 지원으로 인해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 부담 탓에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일회성 지급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위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신안군처럼 햇빛연금이란 항구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1회성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누기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지원금이 선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민들이 직접 해결나선 기후·환경문제

최근 연이어 폭설이 내려 차량 운행은 물론 보행마저 힘든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주민들이 마을 제설 작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제설 작업은 4차선 이상 도로는 시가, 그 이하 도로는 자치구가 맡는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제설작업은 원활한 도로 통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 소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은 제외되기 일쑤이다. 이 같은 불편을 보다 못한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각 동별로 마을제설단을 꾸려 출근길 도로를 정비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마저 선사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 4일 눈이 내리는 새벽 6시,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주택가를 찾았다. 제갈 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주민자치회 회원, 통장단, 자율방재단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단'이 제설 장비로 중무장한 채 골목에서 삽과 너가래 등으로 능숙하게 눈을 치우고 있었다. 제설단원들

은 제설차량으로 잘 치워지지 않는 골목, 마을 길, 인도 등의 눈을 치우기 위해 조직된 봉사활동이라고 한다. 월곡2동 제설단은 주민 33명이 5개 구역을 나눠서 활동하며, 광산구에는 21개동에 959명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제설단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는 자생적인 모임들이 늘고 있다. 북구 양산동에는 양산 호수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있다. 예전에는 호수 주변이 정비되지 않아 버려지다시피 했으나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가꾸면서 몇몇 명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호수 무대에서는 수시로 공연이 열리는 등 북구 명소로 자리잡았다. 문흥동의 문화공원 자치구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와 환경을 조화한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의 문화와 환경 문제를 민간 주도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광주시와 각 구청들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無等鼓

수습기자 시절 겪었던 일 중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게 부검 참관이다. 요즘 후배 기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부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수습기자 교육 중 하나였다. 부검 참관이 시신을 해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의외로 담담했고, 현장에서 들렸던 '소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었다. 부검을 두 번 지켜봤는데 그 중 한 번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매장된 여성의 시신을 특별히 경험이었다. 매장된 여성의 시신을 두할 수 없었던 부모의 간절긴 요구로 수사가 시작됐고, 고등학교 교사였던 남편에게 혐의가 가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었다. 우리나라는 죽은 자의 몸에 다시 칼을 대는 일을 극히 꺼려한다. 그럼에도 가족들이 부검을 받아들였던 건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의학은 이처럼 부당한 죽음을 없애도록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국내 1호 법의학자'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어제 별세했다. 우리나라 법의학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로 꼽히는 그는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 감정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예술과 법의학을 접목한 '법의학, 예술 작품을 해부하다' 등을 펴내 사람들에게 법의학을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국내 리메이크가 확정된 일본의 '연내 추렴'은 법의학자인 주인공이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뒷면에 숨겨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미스터리 의학 드라마다. 때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눈물나는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며 시신에 메스를 든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못 구했는데, 죽어있는데도 모른척하고요?" 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으로 1000여구가 넘는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는 지난해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연내추렴'에는 이런 대목도 나온다. "법의학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없애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의학자들을 응원한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